



2022년 우리의 가정이 연합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연합의 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고, 거룩함으로 연합하고, 성령으로 연합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찬 송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통일찬송가 208장)** **다 같이**

- 1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 2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 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 보다 더 희어 졌네
 - 3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 4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 5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데 없네
- 후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가족소식 **인도자**

가족기도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녀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폐 회 주기도문 **다 같이**



2022
가족과 함께 드리는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설 가정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묵상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23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찬 송 384장 (나의 갈길 다 가도록) (통일찬송가 434장) **다 같이**

-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일 당한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같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아멘

기 도 가족 중에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이 먼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인 가정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봉독 시편 133:1~3 (구약 901페이지) **인도자**

-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 3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 연합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라 **집례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 한 해 동안 평안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 현실이지만 2022년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다윗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형제'란 원어적으로 혈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야곱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한 형제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혈연적으로 가족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혈연적 연합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혈연적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연합 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 가정이 모임 때에 이 자리에 주님도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가정이 예배로 모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가정, 예배가 중심이 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거룩함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배로운 기름'은 아무나 만들지도 못했고, 아무데서나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기름은 성전 기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거나,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 할 때에 사용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성전의 기물들이 기름을 통해서 구별 되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거룩하여 지고 구별 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구별 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세상에서 구별 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혈문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통해 가나안 땅의 산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생명의 물임을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성령의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